

2013. 6. 3.

국제갤러리(주)



# 빛 삶 앎 외부 타자 죽음 무지 내부 자아

## 빛과 어둠의 공간… 비움으로 채운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을 가다

세계 최고의 현대미술 축제인 ‘2013 베니스 비엔날레’의 한국관 전시장은 텅 비어 있다. 그저 비물질적인 빛과 소리, 색채, 어둠만이 공간을 차지한다.

두 개로 나뉜 전시공간 중 빛의 공간에는 통유리벽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 그 빛을 산란시킴으로써 나타나는 찬란한 무지개색, 작가의 숨소리만이 반복돼 들린다. 벽 일부와 천장, 바닥에 붙은 거울에는 내 모습이 무한 반복된다.

전시장 한쪽엔 어둠의 공간이 만들 어졌다. 빛의 공간에 있던 관객이 번호표를 받아 1명씩 들어가는 그 방은 빛과 소리가 완전히 차단돼 아무것도 없는 완벽한 어둠, 정적의 공간이다.

제55회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이 1일 비엔날레 개막과 함께 일반에 공개됐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지원하는 한국관 전시는 프랑스 현대미술 센터 르콩소르시움 공동디렉터인 김승덕씨(59)가 커미셔너를 맡았고, 뉴욕·파리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보파리(Bottari) 작가’로 유명한 설치작가 김수자씨(56)가 작품을 출품했다.

‘호흡-보파리(To Breathe-Bottari)’란 제목의 설치작품은 빛의 공간인 ‘호흡-보파리’, 어둠의 공간인 ‘호흡-정전’, 작가 숨소리 퍼포먼스인 ‘더 위빙 팩토리(The Weaving Factory)’ 등 3개로 구성됐다.

관객들에게 신선한 경험, 충격을 안기는 전시장은 사람, 세상에 대한 한 예술가의 깊은 천착의 결과물이다. 신

형상 없앤 ‘빛-어둠’의 공간  
‘보파리’ 작가 김수자씨 작품

“특별한 경험” “내면 생각케 해”  
현지 매체·각국 전문가 호평

발을 벗고 전시장에 들어선 관객이 처음 맞는 찬란한 무지갯빛은 통유리 건축물을 보파리로 싸듯 유리에 빛을 산란시키는 반투명필름(회절격자필름)을 붙여 가능했다. 유리벽 바깥의 나뭇잎들이 바람에 흔들리면 전시장 내부에 무지갯빛이 덩달아 춤을 춰 내부와 외부가 하나로 연결된다. 인공조명이 없어 태양빛의 움직임, 밝기 등에 따라 다채롭게 변하기도 한다. 관객이 자신도 모르게 빠져들어 들숨날숨을 인식하게 되는 들숨날숨의 음향은 작가가 코로만 허밍한 것이다.

어둠의 공간은 관객 자신의 모든 감각을 새삼 느끼게 한다. 처음 어둠과 정적만이 있는 공간에 들어서면 죽음의 공포까지 몰려온다. 조금 있으면 평소 느끼지 못한 자신의 숨소리, 오장육부의 움직임까지 감지된다. 다시 빛의 공간으로 나오면 마치 새로 태어나는 듯하다.

텅 빈 전시장은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담아내는 듯하다. 빛(빛의 공간)과 어둠(어둠의 공간)은 그저 빛, 어둠이 아니라 탄생과 죽음일 수도 있다. 자궁과 무덤일 수 있으며 앎과 무지, 외부와 내부, 자아와 타자, 정신과

육체의 은유다. 김수자씨 작품세계의 핵심 개념인 풀기와 싸기(보파리), 들숨과 날숨(바느질)이기도 하다.

극과 극으로 대비되는 것들이 뒤엉켜 녹아든 특별한 공간체험을 통해 관객은 자신을 새삼스레 대면하고 감각을 재발견하며 인식체계를 되돌아보게 된다. 작가는 “극단적으로 대립되는 개념들 같지만 삶과 죽음, 빛과 어둠이 하나이듯 결국 모두가 연결된 것 아니겠느냐”며 “자신의 인식체계와 감각체계를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승덕 커미셔너는 “작가에겐 까다롭기로 유명한 한국관 건축물 자체를 작품으로 승화시켰다”며 “관객에게 새롭고 초월적 공간 경험, 또 스스로 적극적인 퍼포먼스가 되도록 유도한다”고 설명했다.

한국관을 경험한 각국 전문가들은 호평을 아끼지 않는다. 이탈리아 밀라노의 일간지 ‘일 소례 24 오레’의 리리나 주카 에디터는 “형상을 없앤 빛과 어둠의 공간해석은 관객들로 하여금 오히려 수많은 형상을 만나게 하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고 호평했다. 국내에도 잘 알려진 중국의 독립 큐레이터 황두는 “빛, 어둠, 명상, 간 결합 등이 떠오른다”며 “한국적 독특성과 함께 보편성으로 관객의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다”고 밝혔다. 미술책 편집자인 프랑스인 크리스틴 마리에트는 “어둠과 침묵의 공간이 나의 내면을 생각하게 하는 전시”라고 말했다. 베니스(이탈리아) | 도재기 기자 jaekke@kyunghyang.com